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교육

김 계 숙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 부교수)

당면문제로 대두되지 않으면 안된다.

1. 청소년은 누구인가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종료한 개념으로 인간의 성적발달과 관련 생식기능이 완숙되는 신체적 발달기로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자기 스스로 인간의 생식본능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인간의 생활주기로 출생에 다음가는 중요 변화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약 10년을 포함하며 12세에서 22세 사이의 연령층이다.

Erickson은 이 시기를 지불연기(moratorium) 시기라 하였는데 실제로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는 경제체제의 변화, 학교교육의 보편화와 형식교육의 연장, 결혼시기의 지연 등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성인역할의 연기로 인하여 청소년은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보유하기 힘들다. 또한 청소년기는 격변과 시련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동요의 시기이며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인생의 결정적 시기이다. 부모에 대한 의존심과 독립심 사이의 갈등속에서 자발성과 자율성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담감이나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 속에서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나 적응상의 애로점 등은 청소년에게 예기치 않은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을 일으키기 쉽다. 청소년들의 비행, 이탈, 범죄 등이 청소년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것도 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이들이 처한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되는 일이다.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지도 육성이 사회적, 국가적 중요

2. 청소년 성의식 구조와 변화

성의식은 인격형성 특히 자아기능 완성의 핵이 된다. 태생기부터 발달되어 온 유아기적 아동기적 성의식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기 고유의 생물학적, 내분비계통의 변화 및 심리적 변화로 인해 잠복되어 있던 성본능이 눈을 뜨며 점차적으로 절정기에 도달하고 성인기적 성의식으로 발달되어 진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점차 증가하는 성본능은 생물학적으로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급격히 내분비계통 및 생리적 기능의 변화로 생식기능이 성숙되면서 정신성적 발달이 왕성해지고 이성에 대한 강한 성적욕구는 성적행동 표출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높은 성관심, 성충동, 성행동은 부정적인 성인사회의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으로 인해 갈등과 좌절에 쉽게 빠진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이러한 성본능을 적절하게 방출, 억압 또는 승화할 수 있는 통제기능을 자아기능이 갖출 수 있도록 성인기적 성의식발달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즉 자아기능이 허약하면 충동적인 성적행동을 유발하여 성문제를 유발할 것이고 반대로 성본능을 완전히 부정 또는 억압해 버리면 무감각한 성발달 상태, 왜곡된 성표출행동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같은 극단의 상태는 결코 건강한 자아기능 완성이 아니다. 청소년의 적절한 성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은 청소년 주체성 확립의 중요한 과업이 되며 청소년은 ① 그들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② 남성다움과 여

성다움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③ 정상대자로서 남·녀중 누구를 좋아하는지 ④ 자신의 육체를 어떻게 느끼는지 ⑤ 경험한 성행위 행동계획과 의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등 이러한 성의식, 성정체감을 분석해 봄으로써 성문제 행동, 비행의 원인을 사정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의 청소년들의 성비행 성범죄 사건으로 보도되는 실태를 보면

① 양적으로 증가 ② 집단화, 조직화 추세 ③ 질적으로 강간·살인 등 폭력화, 강력화 ④ 도시집중화 ⑤ 연소화 추세로 볼 수 있다.

성범죄의 원인적 기술은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사회학적 이론과 정신역동적 이론에 입각한다면 ① 사회체제나 문화양상의 변화에 따른 성격가치관의 변화 ② 무의식적인 자기과괴행위 ③ 중속번식 육구가 쾌락추구로 대체된 성행위의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성범죄는 성충동이 인격에 원만히 통합되지 못하므로써 나타나는 행동이다.

간호사는 청소년의 인격발달과 주체성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의식이 오늘의 청소년층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의식 발달과 성문제, 성비행 예방 및 선도에 간호상담과 교육을 통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의식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1) 성 기피의식, 폐쇄의식이 사라짐

현대 사회환경과 성문화 등의 변모로 성은 음침한 것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학교 학생도 성의 화제가 개방되었고 자신의 신체특징(포경), 흥미, 호기심을 솔직하게 표출하여 교사가 질문에 당혹감을 느껴 성교육시 난점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2) 성은 생식을 위한 종속이 아니다.

성은 생식을 위한 것으로 종족보존 본능으로 직결되어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인간의 성을 생식과 본능의 분야에서 문화의 분야, 쾌락을 위

한 분야, 인간관계의 분야 사랑의 도구로 위치가 옮겨지고 있다.

3) 순결의 절대성이 두너지고 있다.

남성들은 순결 두가치론과 같은 발언을 하면서도 자신의 결혼상대자는 순결을 바라는 것이 지배적이며 또한 여성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절대시 하면서 “애정만 있다면” 혹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면 상관없는 것으로 조건부 시안으로 순결관이 두너지고 있다.

4) 사랑보다 성행동 위주의 의식으로 변화

이성교제에서 우정, 연애로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결혼하여 첫 성경험을 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최근에는 첫 만남에서 당일에 성행동으로 직결되며 동경, 우정, 호기심, 상품, 사랑, 선물 등의 댓가로 사용해도 상호 후회하지 않는다는 의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위와 같은 성의식의 변화를 무조건 잘못됐다, 또는 시대의 흐름이다, 인간의 성행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하기에 앞서 아직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바른 교육이나 정보를 얻지 못한 실정이고, 성에 대해 진지하게 알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였고, 성으로 인한 고민을 상담할 대상도 적고, 이해하고 받아 주어야 할 부모, 선생님 등 기성세대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성문제를 생각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현대상황이다. 일상생활이 성욕을 자극하고 충동행동을 야기시키고 독서, 공부, 운동 등 그 자체만으로 성욕의 승화가 어렵다. 지금까지 사회인습이나 통념은 성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또는 성행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때까지 성욕 지체하는데 보람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실태였지만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 성장의 가속화현상과 성장지, 성보도의 범람, 성문화 사회배경에 휩싸여 “성의 예측”이란 성의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됐다. 서구지역에서는 성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순결성을 지니라는 교육보다는 피임을 사전 예방교육으로 하

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해의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사정해 볼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의 성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기성세대의 책임의 중대성이 막중함을 느낀다.

3. 성교육의 필요성

청소년들에게 “남녀 교제를 하지 말라” “성은 불결한 것이다” “동정이나 처녀성을 사수하라” 이러한 말은 이제 공염불이 되고만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우리사회는 핵가족제도의 출현과 함께 자유주의 사상이 침투되어 현실의 만족과 보다 더 향락을 누리려는 생각이 앞서고 우리사회가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도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에서는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혼전 성행위, 미혼모, 임신매매 10대매춘 등 성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성의 순결이나 성의 자유냐 등의 성의 규범이나 표준을 강력하게 내세울 수 없는 성의 동요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의 변모는 10년, 5년, 1년이 옛날이라고 한다. 이제는 구세대의 성도덕과 성윤리는 타파되고 새로운 성규범을 제시해야 하며 청소년기에 호기심만 유발하는 성정보와 혼란을 건전한 성의식과 성지식, 성의 가치관을 교육하여 청소년의 고민을 덜어주고 장차 훌륭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순결한 생활을 강조하는 성교육이 있어야 한다. 아직도 성교육의 도입에 다소 잡음이 있는 실정이나 다가오는 세대의 올바른 성문화의 비전을 위해 성교육은 과감히 실시되어야 한다. 유치원생의 수음, 선생님 젓가슴 단져보기, 국민학교 2~3년생 학생이 여학생 치마를 들쳐보려 하고, 5~6학년 남학생은 체육시간에 여학생 가슴을 눈여겨보고, 몽정에 놀라는 중학생, 초경시 약 발라달라고 양호실에 오는 학생, 부모들이 숨겨 놓은 비데오를 보다 들킨 자녀와 민망해 하는 부모, 성행위를 시험해보다가 누나를 임신시킨 고등학교 1년생, 성기 크기와 관련된 열등감, 몽정, 유정, 자위행위로 죄의식감에 빠진 중학생 매춘부와 성행위후 극심한 죄

의식감에 빠진 고등학생 등 올바른 성교육과 성상담을 통해 바로 지도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성을 알고 싶어하고 성행위의 정당성과 정상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하며 성욕을 자제하는 방법도 알기를 원한다. 잘못된 성의식은 여성을 성적도구로 사용하고 여성 자신은 성적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려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줄 알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잠재성을 갖도록 교육받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교육은 성교육이 기반이 된다. 남녀의 성이 있어 생명이 태어나고, 출생한 아기가 먹고 성장하여 배설작용을 하며, 남·여성으로서 성의식, 성차를 느끼면서 사춘기에 이른다. 자신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을 불안과 죄의식없이 경험토록 하여,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고, 이성교제, 연애, 결혼, 임신, 출산의 단계로 경험하며 자녀에 대한 모성부성으로써의 바람직한 역할을 인식하고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성교육이란 남녀관계의 학습이며 좋은 기술로 연애를 하고 멋진 결혼을 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성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와같이 남녀관계, 연애, 결혼, 가정생활, 인간생활 모두가 성교육에 포함된다. 성교육이 되지 않을시에 그 피해는 우리들의 자녀요 유치원 원아에서부터 여학생, 남학생으로 등학교시나 화장실, 공원, 놀이터에서 치한에게 성폭행 또는 장난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이 뿐만 아니라 수치심이나, 체면으로 숨겨지는 가족내 근친상간, 친척간의 성적무지로 인한 성적사고, 강간, 동성연애, 미혼모, 성병 등으로 불안과 고민 죄의식감에 빠지는 희생자가 속출될 것이다. 무관심과 교육의 회피는 희생자에게 일평생 악영향을 미치고 성적 불감증, 성적 혐오감, 성도착증 환자가 되기도 한다.

4. 올바른 성 윤리관과 순결교육

윤리—현대인에서 윤리라는 의미는 어색스럽지만 인간의 정제, 인간 삶과 윤리와의 관계를 볼

때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사회 규범으로써 삶의 방향을 가르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윤리한 성적준제로 특징지어진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규범이며 성생활의 자유를 억제키 위한 것이 아니라 성생활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성윤리 도덕의 표준 모델의 부재로 청소년은 사회적 모순속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며 성의 노예가 되어 돈이던 다라는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다. 그러면서도 결혼전 성행위는 금지되어야 함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환경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갈등과 긴장감을 초래케 한다. 어떤 18세된 청소년은 이렇게 부르짖는다. “만일 우리사회가 공공연하게 성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개인적인 성행동을 금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희극을 보면 웃고 비극을 볼 때는 읊니다.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고향을 칩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자극시키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도의 카줄라호의 환두사원에는 신, 인간, 짐승이 함께 합환하는 합환상조각품들이 있는데 이는 인간의 성은 신처럼 신성한 경지에까지 이끌어 올릴 수 있는가 하면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인간의 성의식은 그 개체의 신체적 차이(남·녀의 해부학적 차이), 심리적 차이(남·녀의 성적주체성), 사회적 차이(인간관계 통한 역할)에 따라 성의식이 결정된다. 성은 쾌락의 도구, 출산의 도구, 인간관계 도구로써 상호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아름다우며 그 내부에 윤리와 사랑이 함축되어 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올바른 인격발달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생활 규범의 전제조건으로 6가지를 들고 인간의 성본능은 선천적이며 그것은 최고의 정신상태 안에서만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였고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는 성생활 ② 자기인정과 자기사랑 ③ 보람있고 활기찬 애정관계 ④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⑤ 공동생활에 대한 책임과 관심 ⑥ 전진하고 적극적인 자세이다.

순결교육에 대한 제언

1. 순결교육은 바람직한 인간형성에 있기 때문에 학교, 가정, 사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2. 순결교육은 봉건적 경조관, 도덕관, 종교적 금욕주의, 서구의 성자유주의 등의 선입관에 의해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3. 순결교육은 양성간의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바로하기 위한 교육이며 인간의 행복과 건전한 사회생활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다.
4. 순결교육은 성에 대한 지식전달만이 아니라 인간존엄성 교육이다.
5. 순결교육은 성별·연령·직업여하를 단론하고 모든 계층을 포함한다.
6. 순결교육은 연령에 맞는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중시된다.
7. 순결교육은 교사와 기성세대의 자세와 태도가 중시된다.

참 고 문 헌

- 나철의 7인, 성비행청소년의 의식구조, 한국의과학 No.2 1987.
- 청소년대책위원회, 청소년백서, 청소년대책위원회, 서울, 1984.
- 안재경, 비행청소년의식, 복지문화사, 1984.
- 유진, 청소년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대한가족계획협회, 1984.
- Erickson E.H., Identity, Youth and Crisis, Norton, N.Y. 1968.
- Greenspan SI, Sexuality and Psychic Structure, The Adolescent level of organization In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980.
- Krafft-Ebing R., Psychopathia Sexualis, Stein & Day New York, 1886.
- Nass 외 2인, Sexual Choice, Wadsworth Health Science Division, Monterey, 1981.
- Sorenson RC, Adolescent Sexuality in Contemporary America World Publishing, New York, 1973.